문화/스포츠

현안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 쓰는 새율제 역사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신명몸짓한마당	새내기 율동제		
~200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 2011년	2012년 ~
창작율동 율동패 중심	참여단위 소규모	현재와 유사한 규모 순위 존재	'독립행사' 성격

#. 2주 가까이 공강 시간 틈틈이, 또 저녁시간까지 할애해 연습한 율동이었다. 우리 학과의 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커져갔다. 어느덧 무대에 오를 시간, 굳어버리는 입매를 보고 앞에선 선배가 외친다. "연습대로만 하면 잘 할 수 있어!" 한 동작, 또 한 동작이 모였고 정신없이 율동은 끝났다. "잘했어! 최고야!"라며 격려하는 목소리를 동기와 선배가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풀이', 한 후배가 선배에게 묻는다. "선배, 그런데 새율제는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 25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열린 '경희교육한마당', 흔히 '새내기율동제(새율제)'라고 불리는 행사의 모습을 각색해봤다. 총 15개 단위의 새내기들이 올해도 각각의 학자요구안을 제시하며, 군무를 보여줬다. 이런 새율제의 시작은 별도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에 과거 우리신문의 기사들과 학생회활동을 했던 동문들, 총학생회를 통해 새율제의 역사를 짚어봤다.

새율제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에도 각 단위별로 경쟁하는, 유사한 형태의 율동경연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신명몸짓한마당'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율동패가 중심이 됐다 ▲일부 단위만 참가했다 ▲시기가 5월 대동제였다 등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새율제와는 다른 행사로 이해하는 것이 적확해 보인다. 이후 변화 속에서 신명몸짓한마당은 대동제 기간 율동패의 '창작율동제'로 남게 됐다.

'일부만의' 2004년 행사에서 모두의 세율제로 발전 중

비록 새율제와 다른 행사이지만 신명몸짓한마당에 대한 A학과와 B학과의 온라인 게시물은 새율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일부 설명해준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후배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일부만을 위한 행사가 됐다'는 평가가 있고, 댓글에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도 상당수였다. 단합을 위한 행사라는 취지가 많이 흔들렸던 것으로 추리해볼 수 있다.

이후 2004년, 당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소속 학과/단과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기획했다. ▲모두가 쉽게 참가할 수 있어야 했다 ▲당시 대학사회에서 '민중가요'를 중심으로 한 율동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율동패도 있었기 때문에 배우기 유리했다 등의 이야기를 조합해 볼 때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새율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새율제. 참가하는 단위도 점차 늘어났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새율제가 해오름제, 즉 총학생회 발대식이나 학생총회 혹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의 결과보고와 병행됐었던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다수의 신입생이 모이는 자리의 '선전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해오름제 후 민중가요패·율동패의 공연'이 공식처럼 자리 잡아져 있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에는 간단한 현황보고만 진행하고, 바로 새율제를 속행하는 편이다. 다만 각 단위별로 교육환경과 관련된 요구를 피켓이나, 구호로 전달하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율제 초기와 현재의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새율제는 '신명몸짓한마당'의 영향을 받아 '우승팀'을 가렸다. 심사위원도 존재했다. 심사결과를 종합해 '으뜸상' 혹은 '빛나다 상' 등의 상장을 1등 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새율제의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순위 없이 모두 '독특한', 예를 들어 '저세상'과 같은 종류의 익살스러운 상장을 받고 있다.

참여단위가 먼저 개최시기 물을 정도로 정착돼

총학생회 측은 "이제 매번 참가했던 과/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 먼저 개최여부를 물어올 정도로 정착화 된 상황"이라고 새율제를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참가하지 않는 단위도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역시 "다만 해당 단과대학의 학사일정 및 소속 과/단과대학 학생회의 참가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참여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새율제 12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도 늘 서로에게 건네는 "고생했다", "같이 힘내자"는 응원과 격려의 문화는 굳건하길 기대한다.

연세대 꺾고 대학농구리그 첫 경기 승리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개막

윤지윤 객원기자 yjy530@naver.com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23일 연세대 서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15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71-57로 승리를 차지하면서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 날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대학농구의 강호 연세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쿼터는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선취점으로 포문을 연 우리학교는 연세대의 지역방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격을 전개했다. 우리학교 포워드들은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중 1쿼터에 가장 돋보인 선수는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였다. 최승욱 선수는 날카로운 슛 감각으로 자랑하면서 1쿼터에만 13점을 득점했다. 그와 반대로 연세대는 최준용을 제외한 포워드진이 힘을 쓰지 못했고, 우리학교는 스코어 24-17로 1쿼터를 앞서 나갔다.

2쿼터에는 우리학교의 수비가 돋보였다. 최창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맹상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로 구성된 가드진은 강한 압박 수비로 연세대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포워드진은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다. 최승욱 선수는 2쿼터에도 여전히 가벼운 움직임으로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최승욱 선수가 코트를 휘젓고 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은 빈 공간을 파고들어 순조롭게 점수 차를 벌려 나갔다. 결국 우리학교 농구부는 40-28로 앞서며 2쿼터를 마무리했다.

3쿼터, 연세대는 공세로 전환했으나 우리학교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며 공격을 막아냈다. 상황에 따라 지역방어와 대인방어를 빠르게 전환하며 연세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결국 3쿼터도 스코어 55-43으로 12점 차이를 유지했다.

4쿼터, 우리학교는 경기 내내 좋은 플레이를 보였던 최창진과 최승욱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며 수비진영이 위축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 연세대는 추격을 시작했다. 10점 이내로 좁혀지지 않던 점수 차는 결국 연세대 허훈 선수의 활약으로 9점까지 좁혀졌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 우리학교 한희원 선수와 연세대 박인태 선수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두 명 모두 퇴장을 당했다. 우리학교는 추격을 당했지만 침착하게 남은 경기를 풀어나갔고 결국 스코어 71-57로 연세대를 이기며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활약했던 최승욱 선수는 "초반에 슛감이 좋아서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했더니 생각한 대로 경기가 잘 풀린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안수진 객원기자 dsj005@naver.com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빛나라 젊음! 즐겨라 청춘!
열정을 후원하는 문화공간
KB국민은행 樂star

대학생 은행부문 선호도 1위 브랜드 (2014 한국대학신문 선호도 조사)

새출발! 새시작! 이벤트
장학금 받고, 신바람 나는 대학생활 하자!

이벤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에서 'KB樂star 통장' 'KB Start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KB 스타뱅킹' 중 한가지 상품을 신규 가입한 만18세~만28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장학금을 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 2015. 3. 13(금) ~ 4. 30(목) ■ 참여방법 : 자동응모
■ 장학금 내용 : 100만원(1명), 50만원(10명), 10만원(100명), 5만원(200명)
■ 당첨 발표 : 2015. 5. 20(수) 예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이벤트존 ▶ 행운의 당첨자

star Zone
신개념 대학생 중심 복합 공간

star 클럽
다양한 FUN서비스 혜택을 드리는 2030고객 우대 제도

star 챌린지프로그램
KB국민은행과 대한민국 젊은이가 함께하는 배낭여행

star 블로그
2030 소통의 공간 SNS채널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樂star 블로그(www.kbrocksta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樂star 경희대 목련점
친절한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문화를 즐기세요
경희대 스타벅스 맞은편 2층 02-3295-5913

※ 장학금 수령을 위한 고객정보상의 연락처(휴대폰번호 등)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 2015.5.29(금)까지 장학금 수령거부 또는 연락처 오류로 연락 불가시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제세공과금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하고 장학금은 고객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됩니다.
※ 이벤트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추첨예정일 : 2015.5.19(월))
※ KB 樂Star통장과 KB Start통장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 KB스타뱅킹의 경우 임의단체 명의는 제외되며, 순수 개인 명의만 인정됩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 및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03호(2015.02.25)

KB 국민은행